

용인시 화공약품 공장 폭발사고

암반 파쇄용 무진동 폭약 제조 중 ... 내부 유증기 폭발 2명 사망

용인에 위치한 화공약품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.

12월4일 오후 3시 경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유은리 화공약품 생산공장인 N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.

이에 따라 이철(64), 이순영(63.여), 최병철(61)씨 등 공장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용인 다보스병원과 용인 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.

사고가 N 공장은 연면적 165㎡ 규모의 단층 가건물 형태로 화재는 오후 3시24분 경 진화됐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암반을 파쇄하는 무진동 폭약류 제조작업 중 공장 안에 머물러 있던 유증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2/04>